

2019 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사회문제론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o 과제유형 : (D) 형

o 과 제 명 : 한국 사회의 청년 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1.서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실업 문제의 대두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가나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스스로를 'N포 세대'라 칭하고 한국을 헬조선으로 부르며 분노한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혼이나 연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 인간관계와 희망마저 포기했다고 말한다. 청년들에게 '포기의 땅'이 사회가 그들에게 내미는 대안은 대부분 그들의 고민과 현실에서 실질적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2.본론

1.청년들이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 현대사〉 부제, 당신이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아니다. 에서 뉴스나 포털에서 청년 문제를 볼 때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사회에서 많은 차별로 인해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청년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인 '힘들다'라는 대답보다 '청년 문제는 내 일이 아니다.' '청년 실업도 결국 눈높이의 문제다.' '취업난이지만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괜찮다.' 이들의 이야기가 당혹스러웠지만, 인터뷰한 청년들의 낯것 그대로의 민낯이었다. 많은 청년이 '청년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심하게는 반감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말하는 청년들은 다들 취업난에 허덕이고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에 사는 청년들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청년들의 삶은 그리저럭 잘 사는 청년들도 있다. 문제는 그리저럭 잘 사는 청년들도 있지만 속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이 있고 '그리저럭 잘 사는 청년들'도 자세히 보면 저마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지금의 청년 문제는 청년들의 고민과 무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였다는 걸 인터뷰를 하며 밝혀내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청년들의 모습은 꽤 다양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년 문제의 접근 방식은 그다지 입체적이지 않다. 대부분 언론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문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화이트칼라 직종을 희망하는 남성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병폐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결을 위해선 경제적 구조와 젠더 문제처럼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다루는 청년 문제의 대상은 특정한 소수이다. 다수의 청년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다수의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사라졌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화이트칼라 고학력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만큼 '사라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라진 청년들의 어려움은 경제적 구조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또한, 성차별은 젠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 모두가 청년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야부터 넓혀야 하고 '사라진 청년들'과 그들이 겪는 문제점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건과 지난해 일어난 김용균 사건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잘못된 구조가 낳은 비극이다. 이들에게 일어난 청년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걸 포기하는 삶 보다 더 치열하게 살다가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 문제인 것이다. 청년이라서 힘든 것이 아닌 잘못된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고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부작용이다. 이처럼 청년 문제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복합적인 구조 아래 만들어진 문제다.

정치인들과 미디어가 청년 문제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갈등 요인 계급, 젠더, 지역 문제의 본질은 지워지고 변화는 힘들어진다. 단지 청년 문제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책에서 말하는 세대 프레임이 가진 모순, “ 정말 청년이라서 힘들까?” 라는 질문에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청년'이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아닌데도 청년 세대의 문제라는 '청년이즘'을 강조하고 '청년다움'을 강요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청년이 살기 힘든 헬조선의 본질을 해부하고 비판,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청년 문제에 공감하지 않는다. 청년 문제로 대두되는 대다수의 것들이 세대 프레임으로 환원되었고 방향이 잘못됐다. 프레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정치적 수단이다. 세대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세대교체를 외치는 '세대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만들고 기획한 '어른이 허락한 청년이즘'과는 다르다. 조금이라도 이슈가 되면 정치화 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청년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이들이 사회로 진입해야 할 때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배회하게 되는 것이 청년 문제다. 청년은 미래 세대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현실에서 구현해나가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들의 몫이다. 따라서 청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가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청년 문제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병폐들의 집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 세대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계급 착취 문제, 학벌, 도시와 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청년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미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

2. 청년 문제

〈청년 현재사〉는 기성 세대의 관점이 아닌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위해 청년들을 인터뷰 하였다. 그들이 듣고 바라보는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청년 실업에선 일자리 숫자보다 더 중요한 취업 시장의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가 희망하는 일자리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기성 세대가 말하는 일자리의 눈높이에서도 반박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연봉과 각종 복지 후생이다. 장기적으로 따지면 2년 정도 취준 생활을 하더라도 대기업에 가는 게 여러면에서 낫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은 '삶의 질'도 낮추라는 말이다. 지금의 대기업 독점 구조가 자리잡은 한국 사회는 워라벨을 외치며 '일과 삶의 양립'을 말한다. 하지만 워라벨이 가능하게 하는 직업군은 얼마 안된다. 그 중 하나가 대기업인 것이다.

중소기업을 다녔던 청년의 인터뷰 중 “ 경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최저시급만 주는 게 당연하고 어떤 기업에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중소기업 안 가냐는 말에는 화를 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 최대 스펙을 보유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은 '스펙'을 위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 모두를 허무하게 만든다. 지금의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학력과 교육이 덜 요구되는 일자리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낙인 찍는 부당한 사회가 만연한데 선뜻 중소기업에 가기는 쉽지 않다. 고스펙을 강요하고 경쟁을 과열시킨 지금의 사회 문제가 낳은 결과이다.

“ 고시촌을 중심으로 합격을 위해 모든 것을 잠정적으로 포기하고 한 달에 100만 원에 달하는 시험 준비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컵밥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공무원'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나마 공정한 규칙 아래 움직이는 시스템과 학벌에 대한 차별 없이 시험으로 채용되는 과정 등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은 장점을 가졌다. 그리고 '안정'과 '균형'이라는 이미지의 공무원은 청년들에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직업, 고임금은 아니지만 적어도 워라벨을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인 직업이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 '전문직' 평균 월 소득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소득에 해당하고 고학력에

해당한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 돈,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전문직, 하지만 이 또한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다. 그 만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경제력, 재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업에 따라 계층이 나뉘고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해 보이는 공무원 시험으로 청년들은 모인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이 또한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상실감은 더 커진다. 그들이 꿈꿔 왔던 안정적이고 균형있던 공무원은 현실에선 환상에 불과하다. 초과 근무를 다 채워야 200만 원 정도 받는 월급과 초과 수당을 다 채우기 위해 쓴 많은 시간 중 개인 시간은 없었다.

우리 나라 평균 취업 하는데 걸리는 평균 13개월, 그 힘들다는 취업을 해냈지만 1년도 못 돼 퇴사를 결심하는 청년들도 많다. <벼룩시장>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퇴사의 원인으로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가 49%, 급여 및 복리후생불만이 20%다. 문제의 핵심은 열악한 노동 환경, 과도한 업무와 야근 등이다. 청년 세대에게 물었을 때, 단 한 명도 평생직장 개념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의 가치관을 헬조선의 노동환경은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 환경에는 사내 권력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원칙도 포함된다. 기성세대가 쥐고 있는 사내 권력과 문화는 자연스레 기성세대의 문화로 수렴되고 청년세대에게 강요한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공통적으로 공유된 군대화 된 회사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위계질서에 강요 당하는 청년들은 혼란스럽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삶의 목적이 더 다양하고 본질적이다. 회사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대가 아니다. 직장 생활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지금의 청년 문제에서 노동 환경은 물질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 모두 변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비용'으로 귀결된다.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를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이 늘고 일회용 노동력이 늘어 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죽을까진 앓아가는 잘못된 사회 시스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지어야 할까. 청년 실업의 문제는 취준생이나 청년 개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익을 위해 무시되었던 그 모든 것이 낳은 부작용을 그대로 지나친 지금의 기성 세대일 것이다. 가장 큰 수혜를 받고 현재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세상의 소리에 반박하는 권력자들의 사유가 없이는 청년 실업과 본질적인 청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의 주거난을 위해 시도한 '5평형 빈민 아파트 신축 건' 과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기성 세대들의 자산인 내집마련과 청년들이 말하는 '주거문제'는 다르다. 기성 세대에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문제가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기성 세대에게는 집이 자산이다. 불안정한 직장에서 집에 미래를 의존하고 기성세대들은 집을 이용해 자녀들을 교육시킨다. 이런 사회적 시스템은 집값이 오를수록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진다는 것이다. 자산으로서의 집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청년들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권도 누릴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 빈익빈 부익부와 분배의 비효율성이라는 모순은 재산권과 생존권 사이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사회가 어떻게 평가되는 사회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그닥 크지 않다. 이것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청년들이 꿈꿔오는 행복이란 ' 칼 퇴근해서 맥주 한 잔 하는 소소한 삶'이다. 이러한 지극히 평범한 행복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만든 사회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된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한 청년단체 대표가 “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 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권이 바뀌어도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너무 단편적이고 “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 말했다. 그는 “ 우리 단체는 청년 기본법 제정, 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기본으로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키고,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 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행정 실무 중심의 논의에 빠져 청년 정책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 고 했다.

청년세대는 정치적 사안에서 언제나 약자다. 청년 세대가 정치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 경로가 협소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의 문제가 선행된다. 현대 청년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치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청년 세대의 정치 조직과 집단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회는 청년들은 설득되거나 동원되어야 할 대상이지 주체로 대접받지 못한다. 청년 정치인이 언제나 들러리에 불과하다. 지금의 정치가 욕을 먹는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지금의 정치 세력이다.

3.대안

책에서 말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기성 세대와의 연대다. 공감과 상생이라는 말로 근본적인 문제의 지적과 비판없이 오로지 '해결'만을 목적으로 연대한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 윈윈하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 임금을 삭감당하는 이는 기성 세대들이다. 본질적인 것은 청년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면 그 지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다. 이는 기업소유자들의 이익 때문에 생긴 것을 정작 대기업에게 묻지 않고 서로간의 양보와 타협이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본질을 무시한 청년 실업 지원 대책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청년 노동자와 기성 노동자도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문제는 두 세대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때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와 청년세대의 탈권위적 지향성은 서로가 합치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연대를 위해서라면 어느 한쪽의 동화가 아닌 세대교체적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청년 세대를 위해 내세운 정책 중 '청년 취업 패키지'는 청년 실업 문제에서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 신문에서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라는 기사를 보았다. 현재 '청년수당'은 수준 이하 소득 가구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3~6개월 동안 월 30만~50만 원씩의 현금 지원을 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그리고 한 언론 오피니언 기사에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 논쟁 글을 읽었다.

지난 1월 서울연구원과 민간 싱크탱크 'LAB 2050'이 '청년수당2.0'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한 것을 계기로, '청년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다. 기존의 서울시가 제안해온 '청년활동지원수당'과는 다르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청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1600명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청년 수당,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 20대의 청년 세대는 국가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자리에 진입해도 그들이 요구받는 부당함에 대해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시기이다. 이제 청년에게 안정을 주는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하며, 청년 기본소득은 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부당함을 겪는 청년들에게 '노(NO)'외치게 할 수 있고, 부모들에게는 이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할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다. 안정과 시간을 사회가 제공해주면 우리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빛과 색으로 사회와 경제를 채울 것이다. 새로운 일과 고용주들이 나올 것이며 생산성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지루하게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이제 담대하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려고 한다. 월 50만원을 받기위해 오히려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것과 따라오는 부작용들을 생각하며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도 많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을 위해서 일방적인 찬성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때문에 무모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제는 청년 문제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시기다.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 미래 사회도 현재 사회의 수많은 병폐가 해결되어야 근본적으로 달라 질 수 있다. 그리고 청년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청년들의 포기에서 '결혼'과 '출산'의 포기는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출산율에 있어 정부는 청년 문제 못지 않은 정책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청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청년들은 가족을 거부한다. '아이 낳기 힘든 사회'를 넘어 '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회'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성 세대의 잘못된 부정과 비리가 만든 사회가 아이들에게 준 것은 죽음이었다. 청년 문제가 출산율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청년들의 포기 중 하나가 출산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이 사회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육아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 사회적 제도의 열악함 등 저출산에 대한 접근도 청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변해야 가능하다. 국가 자체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은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청년 문제는 그 자체로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결과이다. 결국 사회가 변해야 가능하다.

3. 결론

우리가 청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책에서 말하는 청년을 만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들조차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청년 문제다.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결코 지금의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다. 기성 세대가 말하는 정의는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대'를 위해 '소'를 버릴수 있는 세상이다. 어른이 되면 그래도 사람답게 나답게 살 줄 알았던 사회가 막상 나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계급에 나뉘어 출발부터 달라지고 부모의 자산이 학창시절과 그들의 취업까지 좌우한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화를 거쳐서 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내린 세상이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이다. 이는 청년 세대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불평등과 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생기는 결과이다. '노력의 대가는 실망감이고 좌절이다. 부딪치고 뼈아픈 노력, 실패는 성공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를 향해 던진 말이다. 한동안 기성 세대가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멘토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청년 세대에게 제시하는 그들의 모델에는 괴리가 있었다.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공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기성 세대가 제시한 성공의 가치가 과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얼마나 편협한 가치를 제시하는지 지금에야 확인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도 복잡다단하다. 적어도 청년 세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면 지금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기성 세대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기준이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다양하지 못하고 제시한 해결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다가간다. 청년 문제를 실업과 결부시켜 현재의 청년 문제가 청년 실업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청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보다는 정치화 시켜 그 심각성을 언론이나 정치가들이 부추킨다. 청년 세대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병폐들의 결과물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문제이며 빈부격차에서 오는 학벌의 불평등, 도시와 지역간의 인프라 격차 등 한국 사회의 여러문제가 종합적으로 노출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결코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연대가 있어야 하며 청년 세대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으로 이행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스스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라고 무한 경쟁으로 몰아 넣었던 사회는 이제 청년들의 존재 자체에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한 자에게 이 사회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청년들이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들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은 많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현재 그들에게 실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가가려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떠한 정책이든 예산이 들기는 매 한가지다. 이때 청년들에게 더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청년 문제에 다가가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임시방편이거나 장기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정책의 방향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말한다. 실질적인 도움과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 입장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 시스템을 위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상이 변화지 않으면 더 좋은 일자리와 청년 문제의 해답은 존재할 수 없다.

참고서적: <청년현재사>김창인, 전병찬, 안태언 /청년담론 기획

참고자료: 한국사회문제교재

한겨레 신문 기사

네이버 기사 참고, 유튜브 'KTV국민방송'시민단체가 말하고 문대통령이 경청한 이야기

※ A4용지 편집 사용